

광주·전남연구원 7월 각각 문 연다

시도, 조례 등 개원 절차 돌입
인력·출연금 확대 역할 강화
성과 중심 평가제도 등 도입

광주시와 전남도가 8년 만에 재분리가 결정된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해 각각 연구원을 개원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남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가 연구원 분리 운영안을 의결하자 곧바로 광주연구원 개원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이르면 7월 개원을 목표로 조직, 인력 등 구상에 들어갔고, 조례 개정, 이사회 구성, 법인 등기 등을 거쳐 공모를 통해 원장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37명인 광주전남연구원 연구 인력 일부를 흡수한 뒤 30~40명까지 인력을 충원하고 연간 35억원 가량이었던 출연금도 확대해

독립 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연구원은 법인 신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무실은 기존 공공기관 청사에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연구원은 시정의 중요한 싱크탱크다”며 “시의 가치, 지향을 공유하면서 양질의 연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가 시정에 반영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조직을 꾸리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오는 7월 개원을 목표로 전남연구원 준비에 착수했다.

전남연구원은 조례 개정, 연구원 이사회 개최, 원장 선임 등을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사는 나주에 있는 광주전남연구원 사무실 임대 기한이 2024년 6월까지인 점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남연구원 신청사는 도청이 있는 무안 또는 목포에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며 조직은 1단(상생협력단), 6실, 5센터 65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도는 전남연구원 위상 제고를 위해 국책 연구기관 등에 연구원을 파견하고, 비상임연구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연구시스템 개선을 위해 기획과제(박사급 4명 이상 융복합 연구)와 지원과제(수시 과제)를 확대하고, 성과 중심의 연구원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광주·전남의 상생 연구 활성화를 위해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광주연구원과 공동발표회, 교차 근무제, 공동연구 인센티브제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했다가 1995년 광주시 출연을 통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됐다. 2007년에는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분리됐으며 2015년 민선 6기 당시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다시 통합됐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기능이 약화했다며 재분리 여론이 나왔다.

/길용현·임채민 기자

“영광 탐방객 300만 시대 적극 지원”

김 지사, 영광서 ‘도민과 대화’
속도감 있는 지역 현안 추진 요청
스포츠센터 건립 도비 등 약속

김영록 전남지사는 28일 “영광 탐방객 300만 시대를 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영광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영광군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를 수 있고 천년 이상을 이어온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지역으로, 칠산타워, 백수해안도로, 불갑사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는 강종만 영광군수, 박원종·오미화·장은영 도의원,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군민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종만 군수는 환영사에 이어 재정지원이 필요한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강 군수는 장애인 재활과 스포츠 수요 급증에 따른 이용자 수요 충족을 위해 추진하는 영광 스포츠센터 건립사업비 46억8,000만원 가운데

장애인 수영장(수중운동실) 건립 등에 필요한 11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스포츠센터는 지상 3층 2,281.2㎡ 규모로, 수중운동실은 지상 1층 813.21㎡ 규모다.

이에 김 지사는 “영광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요청에 대해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도민과 대화에 참여한 주민들도 지역 현안에 대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했다.

장종석 백수지산2리 이장은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조성, 이조현 가마미개발위원장은 가마미 해수욕장 화장실·샤워실 신축, 정명수 영광군연합변회장은 군산-영광-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천년의 빛을 담고 있는 영광군은 e-모빌리티와 해상풍력 등 미래 먹거리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영광군이 미래산업 선도도시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의회는 28일 오후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구도심 공동화, 그 해법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민주도사업 확대 등 대응과제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광주시의회 제공

“구도심 공동화, 콤팩트 시티에서 찾아야”

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

갈수록 심화되는 광주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28일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구도심 공동화, 그 해법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의 지속적인 외연확장으로 인해 지역 구도심 공

동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해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기월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남승진 광주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의 ‘도심 공동화 대응방향’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남승진 대표이사는 도심 공동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도시 전체의 정체성과 매력 저하 ▲사회적 비용 증가 ▲지

역커뮤니티의 붕괴 ▲불균형적인 지역발전 등을 제시했다. 도심 공동화의 대응 전략으로 ▲집약형 도시구조 구현 및 중심시까지 재생 활성화 ▲고령화 사회 대응 ▲인구감소 사회 대응 ▲쇠퇴지역의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홍기월 의원은 “광주시는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로 도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지역 내 심각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콤팩트 시티 구축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로 구도심 공동화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전남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전국 최다’

균형위 주관 24개 마을 선정
노후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

전남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전국 91곳 중 24곳이 선정돼 5년 연속 최다 선정 성과를 거뒀다.

올해 전남에선 19개 시군 29개 마을이 신청해 도시 3개 마을, 농어촌 21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에는 4년간 도시형 30억원, 농어촌형 15억원 내외 국비를 지원받아 빈집·노후주택 정비와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상·하수도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문화·복지·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선정된 도시지역 3개 마을은 목포 용당동 용당1지구, 여수 남산동 남산지구, 나주 이창동지구다.

농어촌지역 21개 마을은 순천 송강면 삼청마을과 상사면 초곡마을, 나주 동강면 대전지구, 광양 봉강면 부암마을, 곡성 입면 제월지구와 삼기면 농소1구마을, 구례 산동면 이촌마을, 보성 벌교읍 원등마을, 화순 동면 동림마을이다.

장흥 관산읍 동두마을과 장흥읍 행원마을, 강진 작전면 죽산마을, 해남 계곡면 둔주마을, 북평면 신흥마을, 영암 미암면 미촌마을, 함평 대동면 금적마을, 장성읍 월산마을, 완도 금일읍 공항마을, 진도 고군면 연동마을, 신안 흑산면 사리마을, 신의면 기동마을도 선정됐다.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정주여건이 취약한 마을의 생활기반 시설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살고 싶은 마을로 변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는 전국 126개 마을이 신청해 균형위 현장·발표평가를 거쳐 도시 11곳, 농어촌 80곳 등 총 91곳을 선정했다.

/정근산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